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밝은 사람들 총서 14)	권석만 외 4인	운주사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3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8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 (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틱낫한 불교	틱낫한/권선아	불광출판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역설과 중관논리 (반논리학의 탄생)	김성철	오타쿠

〈반야심경〉, 불교 철학의 골수



空 · 반야심경 읽기

서정형 지음/공감과 소통 펴냄/1만 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에 관심 갖고 공부 하다 보면 먼저 대장경의 방대한 양에 압도 당하게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중첩된 불교 사상은 초기 붓다의 가르침과 소승 및 대승불교의 다채로운 경전들, 그에 대한 주석서들, 조사 선(禪)에 대한 통찰이 담긴 선어록 등이 한데 모여 다채롭고도 거대한 숲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 경전 고갱이와 핵심을 꿰뚫어 전체를 하나로 꿰고 회통시킬 수 있는 밝은 눈이 없으면 진리의 바다에 한쪽 발을 담그는 것조차 주저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空 · 반야심경 읽기〉는 불교와 공(空) 사상에 관심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또한 서문서도 밝혔듯이, 비단 불교에 익숙한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교와 공사상에 쉽게 접근해서 서로 통섭하는 장을 마련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 책은 공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이 집약된 〈반야심경〉의 행간을 촘촘히 들여다 봄으로써 최고 진리인 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다. 저자는 〈반야심경〉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 한다.

반야경 계열 경전 중에는 십만 송에 이르는 긴 것도 있다. 그만큼 경전의 종류와 수가 많다. 아무리 많아도 공사상에 뿌리를 두고 넓게 보면 대승불교 자체가 공사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반야경전들의 골수일 뿐만 아니라 불교철학 자체의 골수이기도 하다. 저자는 책 속에서 "〈반야심경〉의 한역본이 여럿 있는데 글자수로는 모두 300자를 넘지 않는다. 문자로는 짧지만 뜻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경전이다. 〈반야심경〉에 담긴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경전의 바다를 자유로이 유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공이란 무엇인가?' 는 공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통해 불교 사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공의 이해 → 공 개념의 역사 → 공의 세계 → 공을 보는 법으로 전개되는 일련 과정서 알 수 있듯이 공의 이론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체험적 측면과 함께 일상 생활서 '공을 사는 법' 을 귀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흥미로운 특징이라 하겠다. 이 책의 간명한 서술 방식은 서두의 공에 대한 명쾌한 정의에서 드러난다. 공의 정의는 '자성(自性)이 없다' 는 것이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자성고공(無自性故空)' 이다. 이 다섯 글자만 알면 공을 알게 되고, 그걸 알면 불교를 알게 된다. 우리말로 풀면 모든 사물은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는 말이다. 자성이 무엇인지만 알면 해독이 되는 문장이다.

空의 정의는 '자성이 없다'는 것
공사상 통해 불교 핵심 드러내
전문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놓아

그 뒤를 이어, 공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전과 조사 어록, 그리고 동서양의 저술들을 종횡으로 인용하면서 공이 불교 사상의 핵심인 연기(緣起) 무아(無我) 무상(無常) 중도(中道)와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모두 '최고의 진리' 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과 연기와 중도는 하나의 진실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중도가 아니면 연기와 공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통찰이 불교 철학을 하나로 꿰는 키이다.

이 책의 2부 〈반야심경 해설〉에서는, 예불이나 불교 의례서 낭송되는 〈반야심경〉의 첫 소절인 '관자재보살' 부터 마지막 소절인 '모지 사바하' 에 이르는 전문을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놓았다. 〈반야심경〉이 펼치는 공사상의 변주를 통해서 불교 자체의 핵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 그것은 무아(無我)를 공의 관점서 바라보는 저자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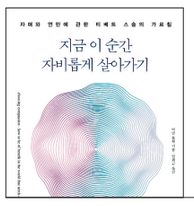
저자는 책 속에서 " '나' 라고 철석같이 믿던 몸과 심리 현상 등이 실체가 없는 공한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면 모든 괴로움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반야심경〉의 요지이다. 팔만대장경도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밝힌다.

불교 경전의 번역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산스크리트어(팔리어)→한문→한글로 이어지는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번역은 '문화의 옮김' 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말 구사가 중요한 것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불교식' 표현이 대중을 불교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글을 읽어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해독되지 않는다면 불교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불교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킨다. 불교에 밝더라도 우리말 소통에서 실패하게 되면 불교의 대중화는 기약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한 저자는 난해한 불교 개념과 논리를 우리 시대의 생활언어로 쉽게 전달키 위해 단어와 토씨 하나에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 **서정형**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서 〈중국 화엄철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서 20여 년 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별책으로 〈밀린다팡하〉 〈중론〉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론〉을 출판했다. 지눌의 〈정혜결사문〉을 풀어 썼고, 용성의 〈각해일륜〉을 영역했다. 논문으로는 〈선불교 수행에 대한 반성〉〈자아가 없는데 누가 윤회 하는가〉 〈선(禪)과 있는 그대로의 세계〉등이 있다. 현재는 청량산 자락에 있는 수경재의 주인으로 소요하고 있다.

"나와 우리는 共業衆生"



지금 이 순간 자비롭게 살아가기

아남 툽텐 지음, 임희근 옮김

담앤북스 펴냄/1만 5천원



"나는 당신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그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티베트서 나고 자라 닝마빠(티베트불교 4대 종파 중 하나)의 깨달은 여러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남 툽텐 린포체. 199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현재 세계 곳곳서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법을 전한다. 우리나라에도 2014년부터 매년 찾아와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그의 설법(강연)은 쉽고 유머러스하다. 언제나 쉬운 설명과 풍부한 사례로 삶의 진리와 진실을 전한다. 이번 책의 중심 키워드는 연민, 자애, 이타심이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타인에게 연민과 자애를 품는 일을 불가능한 일로 여긴다. 그것은 위대한 몇몇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벅차다고 느낀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라 여기며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남 툽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는 데서 온다" "고독과 고립과 소외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연민이 최고의 약"이라고. 연민을 품으면 우리는 '나' 라는 좁은 세상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을 향해 연민을 발휘하면 자기혐오서 벗어나고, 잘못된 자아상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바깥을 향해 연민을 키우면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지구를 위해,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을 위해 그리고 온 생명을 향해 자애의 고리를 넓혀 갈 수 있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연민을 품어야 할까? 불교적 관점에서 인류는 공통적으로 '업' 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의 관점서 보면 세상의 일들은 더 이상 남의 업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전작 〈모든 순간 껴안기〉 〈알아차림의 기적〉서 아남 툽텐은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알고 투사와 심리

자애와 연민 필요성 티베트 린포체의 고찰
알아차림으로 온 생명 대하는 매 순간다짐

적 패턴서 떠오른 생각들의 믿기를 멈춘다는 뜻이다. 우리는 남들과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않기 위해 많은 전략을 쓴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형태의 알아차리지 못함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알아차림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하면 우리는 차츰 두려움과 미움, 수치심과 죄의식의 성향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일상서 더 자유롭고 열린 가슴으로, 자신과 타인과 뭇 생명에게 자애를 선물하는 용기를 북돋는 에세이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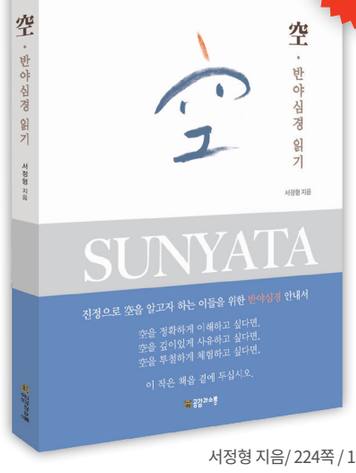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특별한 친구를 갈망하지만, 종국에는 연민만이 특별한 친구입니다. 연민은 우리 자신과 남들 사이를 잇는 멋진 가교입니다. 연민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진정한 느낌으로 규정됩니다. 우리는 티베트 전통에서 하듯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이라는 기도를 외우면서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애의 고리〉 中에서

-"자아 이미지와 연관된 심리적 문제 때문에 말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통은 개인적인 신경증 때문이 아니라, 거의 그들이 노출돼 있는 관습적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멋져 보인다고 생각된 이미지는 매우 특별하며, 그 기준은 사람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주입됩니다. 살면서 만들어 내는 이러한 자아 이미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합니다." 〈자아 이미지를 넘어서〉 中에서

空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사유하고,
몸소 체험하는 길을 제시한 반야심경 입문서!

空 · 반야심경 읽기

20년 간 불교철학을 강의해 온 불교학자의 空에 관한 담론!
空을 통해 불교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서정형 지음/ 224쪽 / 13,000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空과 불교의 사상을 집약했다. 불교의 핵심인 空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반야심경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풀어냈다. -한국일보

이 책은 空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반야심경〉의 행간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최고의 진리인 '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준다. -불교신문

저자 서정형 –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중국 화엄철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 이 책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자의 이메일(naruppe@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소통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41 M빌딩 302-3호 | 전화 031-942-9472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